

『黃帝內經』三焦病機와 三焦相火病機와의 관계에 대한 考察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 ²韓醫學古典研究所
³韓國韓醫學研究院 未病研究團 · ⁴慶熙大學校 大學院 基礎韓醫科學科
白裕相^{1, 2 *} · 金惠一² · 金鍾鉉² · 尹銀卿² · 金尙賢³ · 朴哲漢⁴

A Study on the Relation of Pathologic Mechanisms of Samcho in *Hwangdineijing* and Samcho-Sanghwa

Baik You-sang^{1, 2 *} · Kim Hye-il² · Kim Jong-hyun²
Yoon Eun-kyung² · Kim Sang-hyun³ · Park Cheol-han⁴

¹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³Mibyong Research Center,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⁴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Objectives : In this study, the relation of pathologic mechanisms of Samcho(三焦) in *Hwangdineijing* and Samcho-Sanghwa(三焦相火) is investigated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Samcho.

Methods : The diseases and symptoms about Samcho(三焦) in *Hwangdineijing* and many important medical literatures including *Sanghanlun*(傷寒論) and *Jinguiyaolue*(金匱要略) were selected and analyzed to overview the historical changes of pathologic mechanism about Samcho.

Results : In comparison of the Pathologic Mechanisms of Samcho, the explanation of that in many medical literatures is different from that in *Hwangdineijing*, that is to say, the cause of diseases related to hyperactivity of Sanghwa became the main conditions of pathogenesis about Samcho while the blockage of qi stream through Samcho.

Conclusions : The clinical expression of Samcho pathogenesis is fever with perspiration that means exhaustion of body fluid not only general fever of whole body.

Key Words : Samcho(三焦), Sanghwa(相火), *Hwangdineijing*, pathologic mechanism

* Corresponding Author : Baik You-sang,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Korea.
Tel : +82-2-961-0326, Fax : +82-2-961-9229
Email : baikys@khu.ac.kr

I. 序 論

五臟六腑의 하나인 三焦는 짝이 되는 五臟이 없어서 孤腑라고도 하며 『難經』에서부터 시작된 ‘有名而無形’의 說로 인하여 역사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능과 病機에 대해서도 『黃帝內經』 이래로 다양한 설명이 존재해 왔는데, 三焦의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決瀆之官으로서 水道가 나온다는 것, 營氣 및 衛氣의 생성과 관계되는 것, 그리고 『難經』 이래로 腎間動氣인 原氣의 작용에 관여하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三焦 관련 病機과 다양한 病證들이 임상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黃帝內經』의 三焦 病機를 정리하고, 『黃帝內經』 이후 임상서들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하여 三焦 病機가 역사적으로 대략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후대에 발달하게 되는 三焦相火 病機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주요 내용이 『黃帝內經』 三焦 病機의 그것과 서로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중국의 藏象學이나 臟腑辨證의 연구서들 중에서는 三焦의 기능과 病機를 개괄적으로 기술하였을 뿐 역사적 변천에 대한 조사 분석 내용이 적으며¹⁾ 三焦 病機도 주로 清代 溫病學의 三焦辨證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²⁾. 예를 들어 『中醫藏象學』에서는 三焦病의 病機를 氣化失常과 決瀆失常의 두 가지로만 간단히 분류하고 있으며 관련 病證도 『黃帝內經』 등 기본 의서에서 언급한 것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³⁾. 三焦의 病機를 다룬 중국 논문도 清代 溫病學의 三焦辨證의 연원을 고찰하면서 초기 三焦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辨證형성을 일부 언급하고 있으나 초점이 清代 三焦辨證

과 어떻게 연결되었는가에 주로 맞추어져 있고⁴⁾, 최근에는 明代 이후 命門學說과 관련하여 강조된 三焦氣化說을 바탕으로 三焦의 氣化失常을 새롭게 노년병의 원인으로 본 일부 연구가 있을 뿐이다⁵⁾.

국내의 연구로는 『東醫生理學』에서 病機보다는 주로 三焦의 기능을 다루고 있으며⁶⁾ 『東醫病理學』에서는 臟腑辨證 가운데 三焦辨證을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고⁷⁾, 논문으로는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三焦 病證을 일부 다룬 것 이외에⁸⁾ 趙의 ‘唐代 以前의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沿革’이 초기 三焦 病機와 관련된 연구라 할 수 있다⁹⁾. 趙는 溫病學의 三焦辨證이 아니라 광의의 三焦辨證을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이라 규정하고 춘추시대부터 당대까지 주요 전적에서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三焦 관련 病症이 다양화하고 三焦의 寒熱虛實의 辨證이 형성되어 후대 溫病學의 三焦辨證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단, 三焦의 기능과 三焦 病機와의 구체적인 관계성, 초기의 三焦辨證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辨證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三焦相火 病機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三焦의 病機에 대하여 『黃帝內經』의 내용과 후대 三焦相火說 관련 내용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제 임상에서 인식한 三焦의 病機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三焦의 病機로부터 부수적으로 당시 임상 치료를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겨진 三焦의 기능

Received(27 April 2016), Revised(11 May 2016),
Accepted(12 May 2016).

- 1)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902-912.
- 2) 方肇勤 主編. 中醫辨證論治學.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8. pp.366-368.
- 3)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908-909.

- 4) 宋雲, 史恒軍. 三焦辨證源流淺析. 陝西中醫學院學報. 2007. 30(3). pp.8-10.
劉寒華 外 3人. 三焦辨證源流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4. 20(7). pp.872-875.
- 5) 余亞娜 外 3人. 論三焦氣化說. 中醫雜誌. 2009. 50(5). pp.389-392.
韓景獻. 三焦氣化失常-衰老相關論. 中醫雜誌. 2008. 49(3). pp.200-202.
- 6)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고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집문당. 2008. pp.327-338.
- 7) 전국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東醫病理學. 서울. 일지사. 1998. pp.428-556.
- 8) 윤창열. 三焦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機能, 病證 및 臟腑配合.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2). pp.1-7.
- 9) 趙學俊. 唐代 以前의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沿革.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 28(2). pp.87-102.

들이 무엇인지를 귀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黃帝內經』 이후의 임상서 가운데 『傷寒論』, 『金匱要略』이나 『諸病源候論』, 『千金方』, 『外臺秘要』 등 주요 초기 임상서들을 먼저 고찰하여 『黃帝內經』과 가까운 시기에 三焦 病機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이후 宋代, 金元代, 明代까지 주요醫書에 나타난 三焦 病機가 특히 相火 이론과 결합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과정에서 三焦가 단지 인체 上中下의 구역이나 전신을 가리키는 공간 개념으로 사용되었거나, 임상 측면보다 三焦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三焦가 上中下의 공간 구역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 그와 관련된 임상 표현들은 독립적인 病機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上焦에 폐가 있는데 肺가 虛하여 나타나는 咳嗽은 肺病에 속해야 하며 독립적인 三焦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로 임상치료 상 病證의 기전을 설명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三焦 病機와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하였다.

II. 本 論

1. 『黃帝內經』에서 나타난 三焦의 病機

1) 三焦의 주요 기능

『黃帝內經』에서 三焦의 기능을 上中下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논하고 있는 곳은 『靈樞營衛生會』 편이다¹⁰⁾. 여기서 上焦는 주로 衛氣의 운행과 관련이 있는데¹¹⁾ 병리적으로는 風에 상하여 氣가 未定할 경우 汗이 衛氣 경로를 벗어나서 나며 이러한 병증을 漏泄이라 하였다¹²⁾. 衛氣의 역할은 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關闔 등을 하는 것인데¹³⁾ 上焦의 氣가 선포될 때에도 역시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靈樞決氣』에서 “何謂氣. 岐伯曰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 充身, 澤毛, 若霧露之溉, 是謂氣.”라고 하였고¹⁴⁾, 『靈樞五癰津液別』에서는 “水穀皆入於口, 其味有五, 各注其海. 津液各走其道, 故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 其流而不行者爲液. 天暑衣厚則腠理開, 故汗出.”라고 하였고¹⁵⁾, 『靈樞癰疽』에서도 “腸胃受穀, 上焦出氣, 以溫分肉, 而養骨節, 通腠理.”라 하여 上焦에서 나오는 氣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¹⁶⁾. 이 편에서 上焦의 경로가 비록 經絡의 노선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그 氣가 안개처럼 퍼진다고 하였으며 이때 汗이 같이 나오게 된다. 汗이 나는 것을 단지 衛氣의 溫分肉 작용의 결과로만 볼 수도 있으나 이때 津液이 선포되면서 上焦의 氣가 같이 운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⁷⁾. 예를 들어 『靈樞平人絕穀』에서는 胃의 해부학적 특징을 설명한 후에 바로 上焦와 下焦의 작용을 “上焦泄氣, 出其精微, 慄悍滑疾, 下焦下溉諸腸.”라고 설명하고 있는데¹⁸⁾, 여기서 精微를 내보낸다는 것이 바로 津液의 발설을 통하여 氣가 선포되는 것을 의미한다.

中焦에서는 水穀으로부터 糟粕과 津液을 분리하고 津液을 찌서 精微를 만들어 肺脈으로 넣으면 그것이 변하여 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그 가운데 經隧를 행할 수 있는 것이 營氣라고 하였다¹⁹⁾. 그러

泄.”(靈樞營衛生會)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0.

11) 같은 편에서 말한 ‘衛出於下焦’는 衍文이거나 衛氣가 下焦의 陰分을 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0. “黃帝曰人有熱, 飲食下胃, 其氣未定, 汗則出, 或出於面, 或出於背, 或出於身半, 其不循衛氣之道而出, 何也. 岐伯曰此外傷於風, 內開腠理, 毛蒸理泄, 衛氣走之, 固不得循其道, 此氣慄悍滑疾, 見開而出, 故不得從其道, 故命曰漏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13.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8.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83.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45.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70. “辛入於胃, 其氣走於上焦, 上焦者, 受氣而營諸陽者也, 薑非之氣薰之, 營衛之氣, 不時受之, 久留心下, 故洞心. 辛與氣俱行, 故辛入而與汗俱出... 甘入於胃, 其氣弱小, 不能上至於上焦, 而與穀留於胃中者, 令人柔潤者也, 胃柔則緩, 緩則蟲動, 蟲動則令人悅心.”(靈樞五味論) 즉, 上焦에서 氣를 받아서 諸陽을 자양하는 과정에서 氣가 行하여 汗을 남을 설명하고 있다.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2.

므로營氣 또는衛氣는血과 그 생성의 근원이 같으며 단지營氣와衛氣는精化된氣이고血은神을 포함한氣라는 점이 다르다²⁰⁾. 또한 땀이血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땀도血과 마찬가지로水穀으로부터 만들어진津液이기 때문이며 땀은 주로上焦에서氣가 선포되는 과정에서 나온다.中焦의氣도 이슬처럼 나와서 위로 올라가溪谷과孫脈으로 흘러든다고 하였는데 이는穴脈을 통하는 것으로上焦의氣가 퍼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²¹⁾.

下焦의 기능은 주로小便 생성과 배설에 집중되어 있다.下焦의 경로는廻腸에서 갈라져膀胱으로 가는데水穀이大腸으로 내려가면 활성화 된다. 이때下焦에서別汁이 나와 도랑 없이膀胱으로 스며드는데 이를水道라고 표현하였다²²⁾. 그밖에『靈樞平人絕穀』에서는“下焦下瀆諸腸.”이라 하여²³⁾ 諸腸에津液을 전달하는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2) 三焦의 病機

이상의三焦 기능들을 종합해 보면,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병리 현상으로서上焦에서는漏泄의 경우처럼衛氣가 경로를 이탈하면서 땀이 많이 날 수 있는데,『黃帝內經』에서 직접적인 표현은 없으나 이때 충분히 발열을 동반할 수 있다. 반대로衛氣나上焦의氣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표를 자양하지 못하여諸陽을 기를 수 없는데, 이 경우

腠理가 막히고 울체되어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中焦에서는 주로血과營氣가 만들어지는데 이들의 생성 부족으로 인한 병이 올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소화 장애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下焦에서는 주로小便의 생성, 배설과 관련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黃帝內經』에 나오는三焦 病機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靈樞經脈』에서手少陽三焦經의 經絡病을 “是動則病耳聾渾渾焯焯, 噎腫, 喉痺. 是主氣所生病者, 汗出, 目銳皆痛, 頰痛, 耳後肩臑肘臂外皆痛, 小指次指不用.”이라 하였는데²⁴⁾ 여기서汗出은氣의 발산이 과다하여 생긴 것으로上焦의 病機로 볼 수 있다. 또한『靈樞五癯津液別』에서는 “寒留於分肉之間, 聚沫則爲痛. 天寒則腠理閉, 氣濕不行, 水下留於膀胱, 則爲溺與氣.”라 하여²⁵⁾ 외부의寒邪가 腠理를 막아서 통증이 나타나며氣濕이 선포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 소변이 많아지게 됨을 설명하였는데上焦의氣가 밖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上焦가 통하지 않아 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素問學痛論』에서 “悲則心係急, 肺布葉舉, 而上焦不通, 榮衛不散, 熱氣在中, 故氣消矣. 恐則精却, 却則上焦閉, 閉則氣還, 還則下焦脹, 故氣不行矣.”이라 하여²⁶⁾ 슬픔으로上焦가 막혀 열이 속에 쌓여氣가 소비되는 경우와 두려움으로 역시上焦가 막혀氣가 아래로 몰려脹病이 나타나는 경우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또한『素問調經論』에서는 外寒, 內寒, 外熱, 內熱 등 表裏寒熱이 발생하는 기전을 설명하고 있는데²⁷⁾, 寒氣가 밖에 있기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0.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於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於此, 故獨得行於經隧, 命曰營氣.”(靈樞營衛生會)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0. “營衛者, 精氣也, 血者, 神氣也, 故血之與氣, 異名同類焉. 故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 故人生有兩死, 而無兩生.”(靈樞營衛生會)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45. “中焦出氣如露, 上注谿谷, 而滲孫脈, 津液和調, 變化而赤爲血. 血和則孫脈先滿溢, 乃注於絡脈, 皆盈, 乃注於經脈.”(靈樞癰疽)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4.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素問靈蘭秘典論)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2.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靈樞本輸)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2.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82.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83.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6.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p.218-219. “帝曰經言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 余已聞之矣, 不知其所由然也. 岐伯曰陽受氣於上焦, 以溫皮膚分肉之間. 令寒氣在外, 則上焦不通, 上焦不通, 則寒氣獨留於外, 故寒慄. 帝曰陰虛生內熱, 奈何. 岐伯曰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內熱. 帝曰陽盛生外熱, 奈何. 岐伯曰上焦不通利, 則皮膚緻密, 腠理閉塞, 玄府不通, 衛氣不得泄越, 故外熱.”(素問調經論)

때문에 上焦가 막히고 그로 인해 寒氣만 밖에 머물러 惡寒이 오는 경우가 外寒이며²⁸⁾, 勞倦으로 中焦가 약해져 穀氣가 부족하면 上焦로 氣가 가지 못하고 胃脘에 열이 쌓인 것이 內熱이다. 또한 上焦가 막힌 경우 피부가 막히면서 땀이 나지 않아 열이 발생하니 이것이 外熱이다. 『靈樞五癢津液別』에서는 주로 上焦의 기가 출하여 津液을 선포하여 땀이 나오는데 이것이 잘 안 되면 氣濕이 행하지 못하고 아래로 小便이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²⁹⁾. 그밖에 『素問脹論』에서 “三焦脹者, 氣滿於皮膚中, 輕輕然而不堅.”이라 하여³⁰⁾ 三焦脹의 경우 피부로 氣가 몰려서 물리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주로 上焦의 病機로 볼 수 있다.

中焦에서는 직접적으로 소화 관련 질환을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다. 『素問欬論』에서 “久欬不已, 則三焦受之, 三焦欬狀, 欬而腹滿, 不欲食飲.”이라 하여³¹⁾ 欬病이 오래되어 三焦로 옮겨가면 腹滿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靈樞五味論』에서 苦味が 下脘으로 들어와 三焦의 길이 모두 막혀서 嘔가 나타난다고 하여³²⁾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기타 下焦의 小腹堅이나 小便不得 등의 증상에서 일부 상복부의 中焦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데,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 “三焦病者, 腹氣滿, 小腹尤堅, 不得小便, 窘急溢則水留, 卽爲脹, 候在足太陽之外大絡, 大絡在太陽少陽之間, 亦見於脈, 取委陽.”이라 하였고, 三焦³³⁾의 증후에서도 腫滿이 胃脘까지 올라오는 경우

가 있다³⁴⁾.

下焦에서는 주로 水脹이 나타나며 이에 대비하여 膀胱에서는 小便不利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靈樞五癢津液別』에서 “四海閉塞, 三焦不瀉, 津液不化, 水穀并行腸胃之中, 別於迴腸, 留於下焦, 不得滲膀胱, 則下焦脹, 水溢則爲水脹, 此津液五別之逆順也.”이라 하여³⁵⁾ 下焦에 水液이 정체되어 膀胱으로 스며들어가지 못하여 水脹이 생기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素問宣明五氣』에서도 “心爲噫, 肺爲欬, 肝爲語, 脾爲吞, 腎爲欠爲噦, 胃爲氣逆爲噦爲恐, 大腸小腸爲泄, 下焦溢爲水, 膀胱不利爲癢, 不約爲遺溺, 膽爲怒, 是謂五病.”이라 하여 下焦의 水病과 膀胱의 癢病을 구분하고 있으며³⁶⁾, 『靈樞邪氣藏府病形』에서는 腹滿으로 小便不利가 왔다가 다시 水脹이 생긴 경우를 설명하였다³⁷⁾. 『靈樞本輸』의 三焦下脘에 대한 설명에서도 三焦와 膀胱 虛實에 따라 癢閉와 遺尿가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³⁸⁾.

三焦 전체가 막히거나 기능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앞에서 설명한 腹氣滿, 津液不化 등이 나타나는 데,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小便不利나 嘔 등 몇 가지

p.165. “鼻柱中央起, 三焦乃約.”(靈樞師傳)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56. “風邪在三焦, 三焦約者則小腸痛內閉, 大小便不通. 日不得前後, 而手足寒者, 爲三陰俱逆, 三日死也.”(諸病源候論 癸格大小便不通候)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4. “小腹腫脹, 不得小便, 邪在三焦約, 取之太陽大絡, 視其絡脈與厥陰小絡結而血者, 腫上及胃脘, 取三里.”(靈樞四時氣)

3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83.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32. “五藏氣, 心主噫, 肺主欬, 肝主語, 脾主吞, 腎主欠. 六府氣, 膽爲怒, 胃爲氣逆噦, 大腸小腸爲泄, 膀胱不約爲遺溺, 下焦溢爲水.”(靈樞九鍼論)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9. “三焦病者, 腹氣滿, 小腹尤堅, 不得小便, 窘急溢則水留, 卽爲脹, 候在足太陽之外大絡, 大絡在太陽少陽之間, 亦見於脈, 取委陽.”(靈樞邪氣藏府病形)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1. “三焦下脘, 在於足大指之前, 少陽之後, 出於臍中外廉, 名曰委陽, 是太陽絡也, 手少陽經也. 三焦者, 足少陽太陰之所將, 太陽之別也, 上踝五寸, 別入貫腸胃, 出於委陽, 並太陽之正, 入絡膀胱, 約下焦, 實則閉癢, 虛則遺溺, 遺溺則補之, 閉癢則瀉之.”(靈樞本輸)

28) 이 경우 속에 열이 쌓인다는 언급은 없다.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83. “岐伯曰水穀皆入於口, 其味有五, 各注其海. 津液各走其道, 故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 其流而不行者爲液. 天暑衣厚則腠理開, 故汗出, 寒留於分肉之間, 聚沫則爲痛. 天寒則腠理閉, 氣濕不行, 水下留於膀胱, 則爲溺與氣.”(靈樞五癢津液別)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78.

3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42.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70. “黃帝曰苦走骨, 多食之, 令人變嘔, 何也, 少俞曰苦入於胃, 五穀之氣, 皆不能勝苦, 苦入下脘, 三焦之道, 皆閉而不通, 故變嘔. 齒者, 骨之所終也, 故苦入而走骨, 故入而復出知其走骨也.”(靈樞五味論)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국화된 증상만 있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특별한 병증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黃帝內經』에 나오는 三焦 病機를 종합해 보면, 上焦에서는 汗出과 열이 쌓이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腠理가 막혀서 통증이나 惡寒이 오면서 小便不利로 전변되는 경우도 있었다. 열이 쌓이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上焦가 소통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虛實의 상황에 따라 일부 氣의 부족에 원인이 있었으며 津液의 부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

中焦에서는 주로 三焦가 막혀서 腹滿 등이 나타나는데 中焦에서 만들어지는 營氣, 血 등의 虛實과 직접 관련된 병증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氣血의 생성보다는 三焦의 소통 이상과 관련된 병증이 三焦病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下焦에서는 주로 水脹이 생기는데 膀胱의 小便不利와 동반되지만 서로 종류가 다른 병으로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傷寒論』, 『金匱要略』 및 초기 醫書의 三焦 病機

1) 『傷寒論』, 『金匱要略』의 三焦 病機

『傷寒論』에서는 三焦 관련 표현이 많지 않은데 230번 조문에서³⁹⁾ “陽明病, 脇下硬滿, 不大便而嘔, 舌上白苔者, 可與小柴胡湯, 上焦得通, 津液得下, 胃氣因和, 身濈然汗出而解.”라고 하여⁴⁰⁾ 上焦가 통하면서 津液이 아래로 내려가 胃氣가 안정되고 체표로는 땀이 나면서 풀리는 것을 설명하였다. 小柴胡湯을 써서 三焦가 통하면서 津液이 생성되어 유통되는데 衛氣가 이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金匱要略』에서는 「中風歷節病脈證并治」에서 “味酸則傷筋, 筋傷則緩, 名曰泄, 鹹則傷骨, 骨傷則痿, 名曰枯, 枯泄相搏, 名曰斷泄, 營氣不通, 衛不獨行, 營衛俱微, 三焦無所御, 四屬斷絕, 身體羸瘦, 獨足腫大,

黃汗出, 脛冷, 假令發熱, 便爲歷節也.”라고 하여⁴¹⁾ 枯泄의 증상에서 營衛가 통하지 못하여 三焦가 營衛를 부릴 수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때 津液이 부족하여 몸이 마르고 黃汗은 있으나 정강이는 차고 심하면 열이 나면서 歷節風이 된다. 전반적으로 衛氣가 운행하지 못하고 三焦가 통하지 못한 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五臟風寒積聚病脈證并治」에서 三焦가 竭한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師曰上焦受中焦氣未和, 不能消穀, 故能噫耳. 下焦竭, 卽遺溺失便, 其氣不和, 不能自禁制, 不須治 久則愈. 師曰熱在上焦者, 因咳爲肺痿,⁴²⁾ 熱在中焦者則爲堅, 熱在下焦者則尿血, 亦令淋秘不通, 大腸有寒者, 多驚漉, 有熱者, 便腸垢, 小腸有寒者, 其人下重便血, 有熱者, 必痔.”라 하여⁴³⁾ 上焦竭에서 中焦의 氣不和로 트림이 나타나고, 下焦가 竭할 경우 氣不和로 失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大小腸의 경우와 달리 上中下焦에서는 熱이 있는 것만 언급하고 있다.

2) 기타 여러 초기 醫書의 三焦 病機

(1) 『諸病源候論』(610년)의 三焦 病機

『三焦病候』에서 上中下焦의 氣의 기능을 각각 ‘主內而不出也’, ‘主不上不下也’, ‘主出而不內’이라 하였는데 이는 『難經』의 三焦 出納說을 따른 것이며⁴⁴⁾ 내용적으로는 “謂此三氣, 焦乾水穀, 分別清濁, 故名三焦. 三焦爲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라고 다시 정리하여⁴⁵⁾ 음식 소화, 分別清濁⁴⁶⁾, 氣의 생성

41)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52.

42) 「肺痿肺癰咳嗽上氣病脈證治」에 관한 내용이 나옴.

43)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17-118.

44)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59-60. “三焦者, 水穀之道路, 氣之所終始也. 上焦者, 在心下, 下膈, 在胃上口, 主內而不出. 其治在臍中, 玉堂下一寸六分, 膈兩乳間陷者是. 中焦者, 在胃中脘, 不上不下, 主腐熟水穀. 其治在齊旁. 下焦者, 在齊下, 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主出而不內, 以傳導也, 其治在齊下一寸. 故名曰三焦. 其府在氣街一本一衝.”

45)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95.

46) 『內經』에서는 단지 下焦에서 ‘濟別別汗’이라 한 것을 『難經』에서 ‘分別清濁’이라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후대에 주로 대소변의 생성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39) 『傷寒論』의 조문 번호는 『傷寒論精解』(文濬典 外 6人 編.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를 기준으로 하였다.

40) 文濬典 外 6人 編.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p.461.

및 유통 등의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三焦氣의 虛實에서, 유여하면 脹과 피부의 물러짐 등이 오고 大小便이 막히며 부족하면 오히려 寒氣가 들어와 大小便은 나가나 胸滿, 食不消 등이 나타난다⁴⁷⁾.

三焦가 막힐 경우 일반적으로 津液이 통하지 않게 되고⁴⁸⁾, 나아가 열이 쌓일 수 있다고 보았는데, 「熱病大便不通候」에서 “夫經發汗, 汗出多則津液少, 津液少則胃乾結, 熱在胃, 所以大便不通. 又有腑臟自生於熱者, 此由三焦痞隔, 脾胃不和, 蓄熱在內, 亦大便不通也.”이라 하여⁴⁹⁾ 津液이 말라서 胃가 結하여 열이 나는 경우와 三焦가 막혀서 脾胃不和로 열이 쌓인다고 하였다. 「虛勞三焦不調候」에서는 上中下焦에 寒熱이 있는 경우를 모두 말하고 있는데⁵⁰⁾ 이 때 三焦는 사기가 머무는 위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大小便數候」에서는 “脾胃胃合, 胃爲水穀之海. 水穀之精, 化爲血氣, 以行經脈. 其糟粕, 水液, 行之於大小腸. 若三焦平和則五臟調適, 虛實冷熱不偏. 其脾胃氣弱, 大小腸偏虛, 下焦偏冷, 不能制於水穀者, 故令大小便數也.”라 하여⁵¹⁾ 내용은 비록 中焦에 주로 관련되어 있으나, 三焦가 화평하면 五臟이 조절 되고 결국 虛實冷熱의 치우침이 없다고 하였다. 이

는 三焦가 인체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三焦病에서 寒熱이 錯雜한 것에 대해서는 「虛勞骨蒸候」에서 “十九, 三焦蒸, 亦雜雜乍寒乍熱.”⁵²⁾이라 하였고⁵³⁾, 「大便難候」⁵⁴⁾ 및 「大便不通候」⁵⁵⁾에서도 寒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섞인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耳鳴候」에서 三焦實로 膀胱虛가 오는 데⁵⁶⁾, 三焦가 津液을 선포하여 소비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는 水液이 三焦에 머물러 小便不利가 오는 『黃帝內經』의 내용과 유사하다. 기타 「遊氣候」에서는 三焦의 氣가 잘 선포되지 못하여 虛脹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였다⁵⁷⁾.

(2) 『千金方』(7세기 초)의 三焦 病機

「三焦虛實」에서 기본적으로 『靈樞營衛生會』의 내용을 따르면서도 上焦의 發汗病을 ‘漏泄’에서 ‘漏氣’라고 바꾸어 표현하였고, 이어서 “寒則精神不守, 泄下便秘, 語聲不出, 若實則上絕於心, 若虛則引氣於肺也.”라고 하여⁵⁸⁾ 전체적으로 三焦 자체의 寒熱虛

47)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95. “三焦氣盛, 爲有餘則脹, 氣滿於皮膚內輕經然而不平, 或小便澀, 或大便難, 是爲三焦之實也, 則宜瀉之. 三焦之氣不足則寒氣客之, 病遺尿, 或泄利, 或胸滿, 或食不消, 是三焦之氣虛也, 則宜補之.”(三焦病候)

48)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09. “三焦閉塞, 津液不通, 醫發其汗, 陽氣盛不用, 復重下之, 胃燥熱蓄, 大便澀, 小便不利.”(壞傷寒候)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6161. “夫陰陽不和則三焦隔絕, 三焦隔絕則津液不利, 故令氣塞不調理也, 是以成噎. 此由憂志所致, 憂志則氣結, 氣結則不宣流, 使噎. 噎者, 噎塞不通也.”(噎候)

49)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314.

50)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p.96-97. “三焦者, 謂上中下也. 若上焦有熱則胸膈痞滿, 口苦咽乾, 有寒則吞酸而吐沫. 中焦有熱則身重目黃, 有寒則善脹而食不消. 下焦有熱則大便難, 有寒則小腹痛而小便數. 三焦之氣, 主焦熱水穀, 分別清濁, 若不調平則生諸病.”(虛勞三焦不調候)

51)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392.

52)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118.

53)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3(醫壘元戎).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708. “五蒸, 三焦, 作寒作熱, 石膏竹葉.”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1. “風入腹拘急切痛者, 是體虛受風冷, 風冷客於三焦, 經於腑膈, 寒熱交爭, 故心腹拘急切痛.”(風入腹拘急切痛候)

54)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53. “大便難者, 由五臟不調, 陰陽偏有虛實, 謂三焦不和則冷熱並結故也.”(大便難候)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53. “胃爲水穀之海, 水穀之精, 化爲榮衛, 其糟粕行之於大腸以出也. 五臟三焦既不調和, 冷熱壅澀, 結在腸胃之間. 其腸胃本實, 而又爲冷熱之氣所並, 結聚不宣, 故令大便難也.”(大便難候)

55)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55. “大便不通者, 由三焦五臟不和, 冷熱之氣不調, 熱氣偏入腸胃, 津液竭燥, 故令糟粕痞結, 壅塞不通也. 其湯熨針石, 別有正方, 補養宣導, 今附於後.”(大便不通候)

56)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816. “腎與膀胱合, 病苦耳鳴, 忽然不聞, 時惡風, 膀胱虛則三焦實也. 膀胱爲津液之府, 若三焦實則克消津液, 克消津液, 故膀胱虛也.”(耳鳴候)

57)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409. “夫五臟不調則三焦氣滿, 滿則氣遊於內, 不能宣散, 故其病但煩滿虛脹.”(遊氣候)

實을 모두 말하고 있다. 三焦가 實하면 위로 心과 끊어지고 虛하면 肺로 氣가 당긴다고 하였는데 모두 氣가 막혀서 잘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寒하면 정신을 잃고 大小便이 나간다고 하였는데 이는 厥證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三焦가 막히거나 조화를 잃으면 여러 병이 나타나는데, 「胃腑方·胃腑脈論」⁵⁹⁾과 「脾臟方·肉虛實」⁶⁰⁾ 등에서 이에 대처하는 처방들을 설명하고 있다.

三焦가 조화를 잃었을 때 寒熱이 交作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大腸腑方·痰飲」의 前胡湯 조문에서 “前胡湯, 治胸中久寒, 滯實膈塞, 胸痛, 氣不通利, 三焦冷熱不調, 飲食減少無味, 或寒熱, 身重, 臥不欲起方”이라 하였고, 「治諸風方·諸風」의 金牙酒 조문에서 “又暴口噤失音, 言語不正, 四肢背脊筋急腫痛流走不常, 勞冷積聚, 少氣, 乍寒乍熱, 三焦不調, 脾胃不磨, 飲滯結實, 逆害飲食, 酢咽嘔吐, 食不生肌, 醫所不能治者方”이라 하여 모두 寒熱錯雜이 나타나고 있다. 「三焦虛實」에 나오는 針灸方에서도 “三焦寒熱, 灸小腸輸, 隨年壯”이라 하여 寒熱證을 포함하고 있다.

그밖에 三焦虛損으로 상하로 發泄하는 경우가 있는데⁶¹⁾ 『諸病源候論』의 三焦 虛證과 유사하다.

(3) 『外臺秘要』(752년)의 三焦 病機

기본적으로 『千金方』을 따르면서도 上中下焦에

寒熱이 각각 있는 경우에 치료하는 처방들을 소개하고 있다. 「上焦熱及寒洩痢腸鳴短氣方九首」, 「中焦熱及寒洩痢方三首」, 「下焦熱方六首」, 「下焦虛寒方六首」 등이 그것인데⁶²⁾, 내용은 熱象이 三焦의 각 부분에 있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증상은 三焦 중 다른 부위에 나타날 수도 있다. 下焦가 寒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으로 그 중에는 熱痢에 대한 것이 많다.

그밖에 三焦 열 증상을 치료하는 石膏湯⁶³⁾, 梔子湯⁶⁴⁾ 등이 있는데 이때 三焦熱은 전신의 壯熱을 의미한다. 「消渴方一十七首」에서도 三焦熱을 언급하고 있는데⁶⁵⁾ 이상의 내용이 많지 않으나 三焦熱에 대한 임상 치료가 어느 정도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3. 三焦相火 病機의 형성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기 醫書에서 三焦熱證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데 비하여, 이후 12세기 초에 간행된 『聖濟總錄』(1111년-1117년)의 「心掣」에서는 “論曰內經謂一陽發病, 少氣善效善泄, 其傳爲心掣, 夫心君火也, 三焦相火也. 蓋人氣血和平三焦升降則神明泰定, 三焦既病, 故上欬, 下泄, 少氣, 致心火胥應而不能其動, 若掣者乃其證也.”라 하여⁶⁶⁾

58) 李景榮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702.

59) 李景榮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568. “治嘔吐. 四肢痺冷, 上氣, 腹熱, 三焦不調方. 前胡芎藭, 甘草, 當歸, 石膏, 人參, 桂心, 橘皮, 芍藥, 半夏, 生薑, 大棗, 右十二味, 咬咀, 以水一斗二升, 下黃芩三兩合煮, 取三升, 分三服, 一方不用黃芩”(胃腑方·胃腑脈論)

60) 李景榮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534. “五柔圓, 治閉澀及虛損, 不足飲食, 不生肌膚, 三焦不調, 和榮衛利腑臟補三焦方, 大黃, 前胡, 半夏, 菴蓉, 芍藥, 茯苓, 當歸, 芩蘆, 細辛, 右九味爲末蜜和, 合搗萬杵爲丸, 梧子大, 食後服十五丸, 後稍增之日再”(脾臟方·肉虛實)

61) 李景榮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706. “當歸湯, 治三焦虛損或上下發泄, 吐唾血, 皆從三焦起, 或熱損發, 或因酒發, 宜此方. 當歸, 乾薑, 小蘗, 阿膠, 羚羊角, 乾地黃, 栝枝皮, 芍藥, 白朮, 蒲黃, 青竹茹, 伏龍肝, 髮灰, 黃芩, 甘草, 右十五味咬咀, 以水一斗二升煮, 取三升半, 去滓, 下膠, 取烱, 次下髮灰及蒲黃分, 爲三服.”(三焦虛實第五)

62) 王燾 撰.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p.183-186.

63) 王燾 撰.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65. “又石膏湯, 療傷寒病已八九日三焦熱, 其脈滑數, 昏憤, 身體壯熱, 沈重拘攣, 或時呼呬, 而已攻內, 體猶沈重拘攣, 由表未解. 今直用解毒湯則擊急不差, 直用汗藥則毒因加劇, 而方無表裏療者, 意思以三黃湯, 以救其內, 有所增加, 以解其外, 故名石膏湯方. 石膏, 黃連, 黃檗, 黃芩, 香豉, 梔子, 麻黃, 右七味切以水一斗煮, 取三升分, 爲三服一日, 併服出汗初服一劑, 小汗其後更合一劑, 分兩日服, 常令微汗出, 拘攣煩憤即差得數行, 利心開令語毒折也. 忌豬肉冷水.”(諸論傷寒八家合一十六首, 深師方四首)

64) 王燾 撰.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660. “又梔子湯, 主表裏俱熱, 三焦壅實, 身體生瘡, 或發癰瘤, 大小便不利方. 芒硝, 甘草, 黃芩, 知母, 大黃, 梔子仁, 右六味切以水五升煮, 四味減半下大黃煮, 取一升八合, 去滓, 內芒硝, 分三服.”(癰疽發背證候等論并法五十四首)

65) 王燾 撰.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330. “(千金)論曰夫消渴者 … 遂使三焦猛熱, 五藏乾燥木石猶且焦枯, 在人何能不渴”(消渴方一十七首)

66) 趙佶 編.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712.

心과 三焦의 관계를 君火와 相火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人氣가 和平하여 三焦가 잘 승강하면 心君火의 神明이 크게 안정되지만 만약 三焦가 병들면 心火를 動하지 않아 心掣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三焦熱이 임상에서 표현되는 熱象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면 三焦相火 또는 三焦火는 相火를 중심으로 한 病機를 바탕으로 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1174년에 간행된 『三因方·三焦精府辨證』에서는 “其所謂三焦者，何也。上焦在膻中內應心，中焦在中脘內應脾，下焦在臍下即腎間動氣，分布人身有上下中之異。古人湛寂慾想不興則精氣散在三焦榮華百脈，及其想念一起慾火熾然，翕撮三焦精氣，流溢命門輸瀉而去，故號此府為精府耳。學者，不悟，可為長太息。”라 하였는데⁶⁷⁾，三焦 각각에 心，脾，腎間動氣를 대응하고，마음이 寂滅하여 욕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精氣가 三焦에 있어 百脈을 榮華하는데，하나의 욕심이 일어나면 三焦精氣를 붙어 모아서 命門으로 흘러 보내 없앤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三焦에 精氣가 있기 때문에 ‘精府’라 한 것이다. 三焦를 직접적으로 相火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마음의 욕심이 동하여 三焦의 精氣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간행된 『醫說·五臟六腑其說有謬』(1224년)에서도 『三因方』의 설명을 인용하였는데 精府를 命門之府인 三焦로 바꾸었을 뿐이다⁶⁸⁾.

劉河間은 1186년에 간행한 『素問病機氣宜保命集·痔疾論』의 蒼朮澤瀉丸 조문에서 “蓋謂三焦相火盛而能制陽明金，故木來相侮，內經曰侮謂勝已也，木主生五蟲，叔和云氣主生於脾藏，傍大腸，疼痛陣難，當漸覺，少瀉三焦熱，莫謾多方，立紀綱，此言飲酒多食熱物，脾生大熱，而助三焦氣盛，火能生土也。當瀉三焦火，熱退使金得氣而反制木，木受制則五蟲不生，病自愈矣。”라 하여⁶⁹⁾ 三焦熱을 瀉하는 것이 곧 相火를

제압하는 것이라 하였다. 『普濟方』에서도 “故經所謂膀胱者，州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矣。故膻中者，臣使之官，名三焦相火，下合右腎，為氣海也。”라 하여⁷⁰⁾ 心包와 三焦相火를 연결시키고 있다.

『仁齋直指·火證方論』(1264년)에서도 “華陀云三焦者，相火也。相火之相者，譬之如丞相之相也。善政之道，輔佐週身，維持綱紀，所接元陽以為為身總領，使百脉舒和 ... 蓋三焦者，為諸陽升降之方，呼吸發源之所，三元有道，九竅流通，神志相關，命脉相繼，週身有倚，血氣無偏，治化宣和，是無虞矣。”라 하면서⁷¹⁾ 三焦가 相火이기 때문에 諸陽이 승강운동을 하고 호흡이 발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此事難知·加減涼膈退六經熱』(1308년)에서도 涼膈散을 설명하면서 “易老法，涼膈散，減大黃芒硝加桔梗，同為舟楫之劑，浮而上之，治胸膈中與六經熱，以其手足少陽之氣，俱下胸膈中，三焦之氣同相火遊行於身之表，膈與六經乃至高之分，此藥浮載亦至高之劑，故能於無形之中，隨高而走，去胸膈中及六經熱也。”라 하여⁷²⁾ 三焦의 氣가 相火와 같이 신체의 표를 유행하므로 涼膈散을 써서 凶敵과 六經의 三焦熱을 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推求師意』(1443년)에서는 “故平人肝氣剛勇充於筋而為罷極之本也。其陰器既宗筋之所聚，乃強於作用，皆相火充其力也。若遇接內得陰氣與合則三焦內外之火翕然下從火，從而動則百體玄府悉開，其資生之精盡趨會於陰器以躍出焉，豈腎之所藏者而已。”라 하여⁷³⁾ 입방 시 三焦의 火가 下焦의 相火를 쫓아 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약물과 방제의 운용에 있어서도 三焦火에 대한 표현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銀海精微』에서는 知母에 대하여 “知母，味苦寒入腎經，補腎水瀉腎火三焦火。”라 하였고⁷⁴⁾，『仁齋直指·附證治賦』(1264)에서

67) 陳言 著.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98.

68)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0(醫說). 臺北. 商務印書館. 1990. 1990. p.183. “且其所以謂之三焦者，何也。三焦分布人體中有上中下之異，方人心湛寂，欲念不起則精氣散在三焦榮華百骸，及其欲念一起，心火熾然翕撮三焦精氣流入命門之府，輸瀉而去，故號此府為三焦耳。”

69)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3(素問病機氣宜保命集).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84.

7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9(普濟方).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67.

71)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2(仁齋直指).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301.

72)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3(此事難知).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p. 590-591.

73)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33(推求師意).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14.

74) 中華中醫藥學會 編. 眼科卷(銀海精微). 北京. 華夏出版社. 2008. p.153.

도 黃連解毒湯과 三黃丸에 대해서 “黃連解毒湯, 三黃丸, 瀉三焦火邪.”라 하여⁷⁵⁾ 三焦火를瀉하는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火邪에 대한 病機는 三焦뿐만 아니라 五臟六腑 전체로 확대되어 이에 대한 用藥法이 발달하게 되는데 『湯液本草』(1289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臟腑瀉火藥을 설명하고 있다.

臟腑瀉火藥⁷⁶⁾

黃連瀉心火 木通瀉小腸火 黃芩瀉肺火 梔子佐之 黃芩瀉大腸火 柴胡瀉肝火 黃連佐之 柴胡瀉膽火 亦以黃連佐之 白芍藥瀉脾火 石膏瀉胃火 知母瀉腎火 黃芩瀉膀胱火 柴胡瀉三焦火 黃芩佐之⁷⁷⁾

三焦가 神, 膀胱과 함께하고 있으며 柴胡와 黃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대의 『證治準繩』(1602년)에도 五臟六腑와 여러 질환의 火邪를 해독하는 약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湯液本草』의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凡用解毒藥要別臟腑分陰陽而治之 如黃連解心火 黃芩解肺火 梔子解肝火 黃芩解腎與三焦火 石膏解脾胃火 木通解小腸火 黃芩又解大腸火 連翹牛蒡子解瘡毒火 山豆根紫草解痘毒火 升麻解疫毒火 各有主治不同也⁷⁸⁾

三焦의 寒熱에 대한 임상 치료는 이미 초기 醫書에서부터 언급되어 왔는데 『醫壘元戎』(1291, 1297)에서는 특히 三焦熱用藥大例라고 하여 上中下焦 별로 사용 처방을 정리해 놓았다. 같은 내용이 후대 『普濟方』(15C초)에도 나오며 三焦寒用藥大例가 추가

된 것이 차이가 있다. 『醫壘元戎』과 『普濟方』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焦熱用藥大例⁷⁹⁾(醫壘元戎)

上焦熱 清神散, 連翹防風湯, 涼膈散, 龍腦飲子, 犀角地黃湯

中焦熱 小承氣湯, 調胃承氣湯, 洗心散, 四順清涼飲, 桃仁承氣湯

下焦熱 大承氣湯, 五苓散, 立效散, 八正散, 石葶散, 四物湯, 抵當湯丸

海藏云, 此內熱之大略也. 有外熱者, 當求別法. 兼此例, 有輕重氣血之分, 用者, 當擇其可焉而已矣.

三焦寒用藥大例(普濟方)⁸⁰⁾

上焦 桂附丸, 鐵刷湯, 胡椒理中湯

中焦 二氣湯, 附子理中丸, 大建中湯

下焦 還少丹, 八味丸, 天真丹

明대의 『證治準繩』(1602년)에는 三焦熱用藥大例에서 上中下焦 별로 사용하는 약물을 정해 놓았으며, 그 밑에 『醫壘元戎』 三焦熱用藥大例에 나오는 처방들을 인용하였는데 일부 처방들이 가감되어 있다⁸¹⁾. 또한 明대의 『赤水玄珠』(1584년)에는 王海藏 治三焦寒用藥大例이 실려 있는데 앞서 『普濟方』에서 처방을 분류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證治準繩』과 『赤水玄珠』의 三焦寒用藥大例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三焦熱用藥大例⁸²⁾(證治準繩)

上焦熱 梔子 黃芩

75)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2(仁齋直指).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42.

76)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3(湯液本草).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912.

77)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34(醫旨緒餘).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1103. 明代 孫一奎의 『醫旨緒餘』(16C말)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며 문장 끝에 “以上諸藥各瀉其火不惟止能如此 更有治病合為君合為臣 處詳其所宜而用 勿執一也”이 추가되어 있다.

78) 王肯堂 著. 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1487.

79)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3(醫壘元戎).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727.

80) 『普濟方』에도 『醫壘元戎』의 三焦熱用藥大例가 있는데 순서만 다르고 동일하며 抵當湯丸이 抵當湯으로 되어 있다. 또한 『普濟方』에는 「三焦實熱論」과 「三焦虛寒論」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81) 王肯堂 著. 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7. 上焦熱에 龍腦鷄蘇丸, 中焦熱에 瀉脾散, 貫衆散, 下焦熱에 三才封髓丹, 滋腎丸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下焦熱에서 抵當湯丸이 빠져있다. 또한 끝부분에 “通治三焦甚熱之氣, 三黃丸, 黃連解毒湯.”이 추가되어 있다.

82) 王肯堂 著. 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37.

中焦熱小便不利 黃連 芍藥

下焦熱 黃蘗 大黃

王海藏治三焦寒用藥大例⁸³⁾(赤水玄珠)

上焦寒 陳皮 厚朴 藿香 皆可治之

中焦寒 大小便不通 白朮 乾薑 丁香 皆可治之

下焦寒 肉桂 附子 沈香

종합해 보면, 三焦相火의 病機가 정립되면서 임상적으로 三焦火에 대한 약물과 처방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함께 三焦寒熱에 대한 내용도 정리되어 『湯液本草』, 『醫壘元戎』, 『普濟方』, 『證治準繩』 등에 다수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Ⅲ. 考 察

『黃帝內經』에서 언급한 三焦의 기능은 三焦가 단지 上中下의 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上焦, 中焦, 下焦가 각각 독특한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기능들을 살펴보았을 때 氣血, 津液을 생성하고 선포하며 이에 따라 營衛를 운행시키고, 大小便을 만들어 내보내는 등 인체 생리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三焦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병리 현상들은 넓게 보면 인체의 모든 병증들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三焦가 五臟六腑의 하나로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을 때 실제 三焦와 관련된 病機의 범위는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黃帝內經』에 나오는 三焦 관련 병증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三焦의 길이 막혀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데, 上焦에서는 氣가 과다하게 선포되어 땀이 나면서 發熱, 惡寒 등이 나타나고 中焦에서는 腹滿이, 下焦에서는 水脹과 小便不利가 주 증상이었다. 이에 비하여 三焦가 생성하는 氣, 血, 津液 등의 虛實에 대한 병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黃帝內經』의 三焦 病機가 인체 구성 요소의 생성 변화보다는 소통 기능의 이상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熱이 안팎으로 쌓

이는 경우도 氣血, 津液의 多少와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三焦가 통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이었다.

『黃帝內經』 이후 초기 임상서들을 살펴보면,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는 다른 장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三焦 病機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으나, 上焦의 소통과 津液의 선포, 三焦 氣不和로 인한 병증 등을 설명하여 『黃帝內經』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諸病源候論』, 『千金方』, 『外臺秘要』 등으로 내려오면서 기본적으로 三焦가 막혀서 나타나는 병증들 이외에, 三焦熱證에 대한 내용이 많아져서 이들 초기 임상서 중 가장 후대에 출간된 『外臺秘要』에 와서는 三焦熱을 전신의 壯熱 등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는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三焦의 조절 기능 이상으로 인한 병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三焦의 不調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 寒熱錯雜인데 이는 후대 『湯液本草』에서 三焦火를 瀉하는 약으로 柴胡를 제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黃帝內經』의 三焦 病機와 비교해 볼 때 三焦不通으로 인한 熱證이 보다 강조되면서, 한편으로 三焦가 五臟六腑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관점이 나타난 것이 전반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難經』에서 腎間動氣의 原氣論이 강조되면서 三焦가 原氣之別使가 되어 五臟六腑를 소통하는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⁸⁴⁾ 이러한 사상이 三焦의 조절 기능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難經』에서는 별도로 三焦만의 독특한 병리와 병증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金匱要略』, 『諸病源候論』, 『千金方』, 『外臺秘要』 등에서는 三焦의 寒熱虛實을 설명하고 있는데, 寒熱의 경우는 上中下의 공간적 구역에 해당 寒熱의 邪氣가 있어서 나타나는 병증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虛實의 경우는 三焦 자체의 기능 이상으로서 주로 氣의 有餘不足이나 氣의 不通 등으로 나타나는 독립된 病機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趙

83)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34(赤水玄珠). 臺北. 商務印書館. 1990. p.70.

84)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15. “膻下腎間動氣者, 人之生命也, 十二經之根本也, 故名曰原.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於五臟六腑. 原者, 三焦之尊號也, 故所止輒爲原. 五臟六腑之有病者, 皆取其原也.”(66難)

의 연구에서 이러한 三焦 病症에 대한 寒熱虛實의 구분이 바로 三焦理論에 기초한 三焦辨證의 형성이라고 보았는데⁸⁵⁾, 구체적으로 『黃帝內經』에서 말한 어떠한 三焦의 기능 이상이 寒熱虛實의 辨證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더 필요하다. 즉, 三焦의 虛實을 氣의 有餘不足과 氣의 不通 등으로 본 것은, 이미 『黃帝內經』에서 上焦가 氣를 發泄시키는 것과 氣所生病 등을 언급하였고, 『難經』에서 三焦를 ‘原氣之別使’라고 규정한 것 등과 관련되어 있다. 참고로 華陀의 저작 내용을 일부 포함하며 隋唐代 즈음에 저술되었다고 여겨지는 『中藏經』에서도 「論三焦虛實寒熱生逆順脈證之法」에서 三焦의 寒熱虛實을 설명하고 있는데⁸⁶⁾ 여기서는 虛實보다 寒熱이 중심이며, 虛實도 氣가 가로막히거나 부족하여 통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여, 三焦의 기능이 주로 氣를 선포하고 운행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⁸⁷⁾.

宋代 이후 運氣學이 발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三焦와 相火를 연결시켜 病機를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手少陽의 특성을 가진 三焦가 少陽相火와 연결된다는 運氣學 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후 相火學說의 역사적 발전과도 관계가 있다. 相火 이론은 陳無擇의 ‘君火論’을 거쳐 朱丹溪의 ‘相火論’에 이르러 인체를 발달시키고 운영하는 原氣와 생명력을 대표하게 되었고⁸⁸⁾ 이후 命門學說과 결합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는 『難

經』에서 腎間動氣를 生氣之原이라 하고⁸⁹⁾ 命門을 原氣之所繫라고 한 것⁹⁰⁾에 기원하고 있다. 金元代의 의가들이 相火와 命門의 개념을 결합시켜 보기 시작하였다면, 이후 明代의 溫補學派 의가들은 자신들의 命門學說을 강조하면서 이에 맞추어 다시 相火 이론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치료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역시 『難經』으로부터 이어지는 道家의 元氣論 또는 原氣論이 자리 잡고 있으며⁹¹⁾ 醫易學이 그 이론적 뒷받침을 하게 된다⁹²⁾.

三焦 개념이 相火 이론과 연결되면서 임상 분야에서는 『仁齋直指』에서처럼 三焦를 諸陽이 승강운동을 하고 호흡이 발원하는 시작점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相火가 妄動하는 것과 연결시켜 『推求師意』에서는 入房을 하면 三焦의 火가 下焦의 相火를 쫓아 動하게 된다고 하였고, 『此事難知』에서는 三焦의 氣가 원래 相火와 함께 表를 유행하므로 열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劉河間은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이때에 三焦熱을 瀉하는 것이 곧 相火를 제압하는 방법이라고까지 제시하게 된 것이다. 또한, 心君火와의 관계에서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나면 三焦精氣가 命門으로 흘러나가 없어진다고 보았고 三焦가 안정되면 心의 神明이 크게 안정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三焦相火 病機의 발달 속에 三焦火 또는 三焦熱을 다스리는 약물과 처방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여 『湯液本草』, 『醫壘元戎』, 『普濟方』, 『證治準繩』 등에 다수 나타나게 된다.

『黃帝內經』의 三焦 病機와 후대의 三焦相火 病機를 비교해 보았을 때, 원래 上焦의 氣와 衛氣가 陽氣를 퍼뜨려 체표를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靈樞營衛生會』에서 병리적으로 風邪가 침입하여 腠理가 열리면 衛氣가 경로를 벗어나 밖으로 달려 나가게 되어 땀이 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素問調經論』에서 上焦가 不通하여 오

85) 趙學俊. 唐代 以前의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沿革.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 28(2). pp.99-100.

86) 李聰甫 主編. 中藏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72-73. “又上焦實熱則額汗出而身無汗, 能食而氣不利, 舌乾, 口焦, 咽閉之類, 腹脹時時, 脅肋痛也. 寒則不入食, 吐酸水, 胸背引痛, 噎乾, 津不納也. 實則食已還出, 膨脹不樂. 虛則不能制下, 遺便溺而頭面腫也. 中焦實熱則上下不通, 腹脹而喘咳, 下氣不上, 上氣不下, 關格而不通也. 寒則不痢不止, 食飲不消而中滿也. 虛則腸鳴鼓脹也. 下焦實熱則小便不通而大便難, 苦重痛也. 虛寒則大小便泄下而不止.”

87) 李聰甫 主編. 中藏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72-73. “三焦者, 人之三元之氣也, 號曰中清之腑, 總領五臟六腑, 榮衛經絡, 內外左右上下之氣也. 三焦通則內外左右上下皆通也. 其於周身灌體, 和內調外, 榮左養右, 導上宣下, 莫大於此者也.” 이는 『難經』에서 三焦가 原氣를 선포시킨다고 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

88) 白裕相. 陳無擇의 君火論과 朱丹溪 相火論의 比較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pp.387-388.

89)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2.

90)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p.67-68.

91) 殷哲攻. 命門相火學說에 대한 의학적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p.210.

92) 白裕相. 易學의 醫學의 適用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3). pp.93-94.

려 胰理가 막혀서 열이 난다고 하였고, 上焦가 不通할 경우 中焦의 下脘이 막혀서 안으로 열이 쌓이는 경우도 설명하였다. 이상의 설명들은 胰理의 開闔異常이나 上焦, 中焦의 不通 등이 원인이 되어 열이 생기는 것으로 후대 三焦相火 病機에서 三焦가 相火나 心火의 동요에 따라 열이 나게 되는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三焦가 津液의 선포와 함께 腎間動氣의 原氣를 유통시킨다고 하는 『難經』의 관점은, 『黃帝內經』에서 上焦에서 津液이 선포되고 땀이 날 때에 上焦의 氣가 같이 운행한다고 한 것과 서로 공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후대의 三焦相火 病機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三焦熱을 相火의 妄動으로 인한 發熱로 본다면, 곧 우리 몸의 근본인 原氣의 운행이 과다하여 熱이 발생하였다고 해석되는데 논리적으로 조금 무리한 해석에 될 수 있다. 따라서 『黃帝內經』의 三焦 病機와 후대 三焦相火의 病機는 그 이론적 배경에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상 표현에 있어서 三焦熱을 일반적인 發熱이나 단지 전신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壯熱 등과 구분해서 보자면, 汗出로 인하여 津液과 氣의 소모가 많으면서 나타나는 發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結 論

『黃帝內經』 및 이후의 주요 임상서들에서 三焦 病機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의 역사적 전개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특히 후대에 발달하게 되는 三焦相火 病機의 형성과 『黃帝內經』 三焦 病機와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1. 『黃帝內經』의 三焦 관련 病證은, 上焦에서는 氣가 과다하게 선포되어 땀이 나거나 發熱, 惡寒 등이 나타나고 中焦에서는 腹滿이, 下焦에서는 水脹과 小便不利가 주 증상으로서, 그 病機가 인체 구성요소의 생성 변화보다는 소통 기능의 이상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 熱이 안팎으로 쌓이는 경우도 氣血 운행의 過多라기보다는 三焦가 통하지 않아서 오는 결

과였다.

2. 『黃帝內經』 이후 『傷寒論』과 『金匱要略』에서는 上焦의 소통과 津液의 선포, 三焦 氣不和로 인한 병증 등을 설명하여 『黃帝內經』의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諸病源候論』, 『千金方』, 『外臺秘要』 등의 대규모 임상서에서는 기본적으로 三焦가 막혀서 나타나는 병증들 이외에, 三焦熱證에 대한 내용이 많아져서 가장 후대에 출간된 『外臺秘要』에서는 三焦熱을 전신 壯熱로 보고 있으며 이를 치료하는 처방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三焦의 조절 기능 이상으로 인한 병증들이 나타났다.

4. 宋代 이후 運氣學이 발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三焦와 相火를 연결시켜 病機를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心君火와의 관계 속에서 三焦 病機를 설명하기도 하였고, 임상적으로 三焦火 또는 三焦熱을 다스리는 약물과 처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여 『湯液本草』, 『醫壘元戎』, 『普濟方』, 『證治準繩』 등에 기재되었다.

5. 『黃帝內經』의 三焦 病機와 후대의 三焦相火 病機를 비교해 보면, 원래 上焦의 氣와 衛氣가 陽氣를 퍼뜨려 체표를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하므로 衛氣가 경로를 벗어나 밖으로 달려 나갈 때 열이 나가거나 上焦가 不通하여 안으로 中焦에 열이 쌓이는 경우 등이 『黃帝內經』에 나오나 이는 후대 三焦相火 病機에서 三焦가 相火나 心火의 동요에 따라 열이 나게 되는 설명과는 차이가 있었다.

6. 三焦가 津液의 선포를 통하여 腎間動氣의 原氣를 유통시킨다고 하는 『難經』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黃帝內經』에서 上焦에서 津液이 선포되고 땀이 날 때에 上焦의 氣가 같이 운행한다는 것이 서로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었고, 그 임상적 표현은 汗出 등 津液이 많이 소모되면서 나타나는 발열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References

1. Ling YX. Nanjingjiaozh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1.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 Moon JJ, et al. ed.. Precise Interpretation of Shanghanlun. Seoul. Publisher of Kyunghee Univ. 1998.
文濬典 外 6人 編. 傷寒論精解.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3. Fang ZQ. Zhongyibienzhenglunzhixue. Shanghai. Sanghaizhongyiyadaxue Press. 2008.
方肇勤 主編. 中醫辨證論治學. 上海. 上海中醫藥大學出版社. 2008.
4. The Commercial Press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 10(Yishuo).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9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0(醫說). 臺北. 商務印書館. 1990.
5. The Commercial Press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 12(Renzhaizhizhi).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9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2(仁齋直指). 臺北. 商務印書館. 1990.
6. The Commercial Press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 13(Suwenbingjiqiyibaomingji).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9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3(素問病機氣宜保命集). 臺北. 商務印書館. 1990.
7. The Commercial Press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 13(Yileiyuanrong).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9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3(醫壘元戎). 臺北. 商務印書館. 1990.
8. The Commercial Press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 13(Cishinanzhi).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9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3(此事難知). 臺北. 商務印書館. 1990.
9. The Commercial Press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 13(Tangyebencao).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9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3(湯液本草). 臺北. 商務印書館. 1990.
10. The Commercial Press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 19. Taipei. The Commercial Press(Pujifang). 199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19(普濟方). 臺北. 商務印書館. 1990.
11. The Commercial Press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 33(Tuiqiushi).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9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33(推求師意). 臺北. 商務印書館. 1990.
12. The Commercial Press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 34(Yizhixuyu).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9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34(醫旨緒餘). 臺北. 商務印書館. 1990.
13. The Commercial Press ed.. The outline of Chinese Medicine 34(Chishuixuanzhu). Taipei. The Commercial Press. 1990.
商務印書館 編. 中國醫學大系34(赤水玄珠). 臺北. 商務印書館. 1990.
14. Wang Q. Zhonyizangxiangxu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7.
王琦 主編.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15. Wang KT. Zhengzhizhunsheng.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7.
王肯堂 著. 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6. Wang D. Waitaimiyao.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5.

- 王燾 撰. 外臺秘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17. Wang L. Yijingsuhuij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3.
王履. 醫經溯回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18. Liu WS. Suwenrushiyunqilunao. Daeje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7.
劉溫舒 著. 素問入式運氣論奧. 대전. 한국한의학 연구원. 2007.
19. Li JR ed.. Beijiqianjinyaofangjiaosh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7.
李景榮 校釋. 備急千金要方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20. Li CF. Zhongzangjingjiaozh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0.
李聰甫 主編. 中藏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1. Faculties of Korean Medical pathology in the Korean Medical Colleges. Korean Medical Pathology. Seoul. Iljungsa. 1998.
전국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東醫病理學. 서울. 일증사. 1998.
22. Faculties of Korean Medical physiology in the Korean Medical Colleges. Korean Medical Physiology. Seoul. Jimmundang.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東醫生理學. 서울. 집문당. 2008.
23. Ding GD ed.. Zhubingyuanhoulunjiaozhu Sha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2.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24. Ding GD ed.. Zhubingyuanhoulunjiaozhu Xia.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2.
丁光迪 主編. 諸病源候論校注(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25. Zhao Ji ed.. Shengjizongl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5. p.712.
趙佶 編.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26. He R. Jinguiaoluejiaozh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90.
何任 主編. 金匱要略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27.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28. Hong WS. JeonggyohwangjenaegyeongYoungchu.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29. Baik YS. A Study on the Comparision of Gunhwaron by Junmutaek and Sanghwaron by Judangye.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 19(3).
白裕相. 陳無擇의 君火論과 朱丹溪 相火論의 比較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6. 19(3).
30. Baik YS.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IChing to Medicine.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4. 27(3).
白裕相. 易學의 醫學의 適用에 대한 小考.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4. 27(3).
31. Song Y, Shi HJ. A Study on the origin of pattern identification of Samjiao. J. of Shanxi Colleg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7. 30(3).
宋雲, 史恒軍. 三焦辨證源流淺析. 陝西中醫學院學報. 2007. 30(3).
32. Yu YN, et al.. A study on the Theory of Qi Generation. J.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9. 50(5).
余亞娜 外 3人. 論三焦氣化說. 中醫雜誌. 2009. 50(5).
33. Liu ZH, et al.. A Study on the origin of pattern identification of Samjiao. Chinese J. of Basic Medicine in TCM. 2014. 20(7).

- 劉寒華 外 3人. 三焦辨證源流考. 中國中醫基礎醫學雜誌. 2014. 20(7).
34. Yoon CY. The functions, diseases and the organ-combination of Samcho based on the shape of Samcho.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3. 26(2).
윤창열. 三焦有形으로 살펴본 三焦의 機能, 病證 및 臟腑配合.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3. 26(2).
35. Eun SM. A Historical Study on the Myeongmunsanghwa Theory.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9. 22(4).
殷哲玟. 命門相火學說에 대한 의사학적 고찰.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9. 22(4).
36. Jo HJ. History of Symptom Discrimination based on Theory of Triple Energizers before Tang Dynasty. J.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5. 28(2).
趙學俊. 唐代 以前の 三焦理論에 기초한 辨證의 沿革.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5. 28(2).
37. China Association of Chinese Medicine ed.. Volume of Ophthalmology(Yinhaijingwei). Beijing. Huaxia Press. 2008.
中華中醫藥學會 編. 眼科卷(銀海精微). 北京. 華夏出版社. 2008.
38. Chen Y. Sanyinjiyibingzhengfanglu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3.
陳言 著. 三因極一病證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39. Han JX.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break of Qi generation and Decrepitude. J.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8. 49(3).
韓景獻. 三焦氣化失常-衰老相關論. 中醫雜誌. 2008. 49(3).